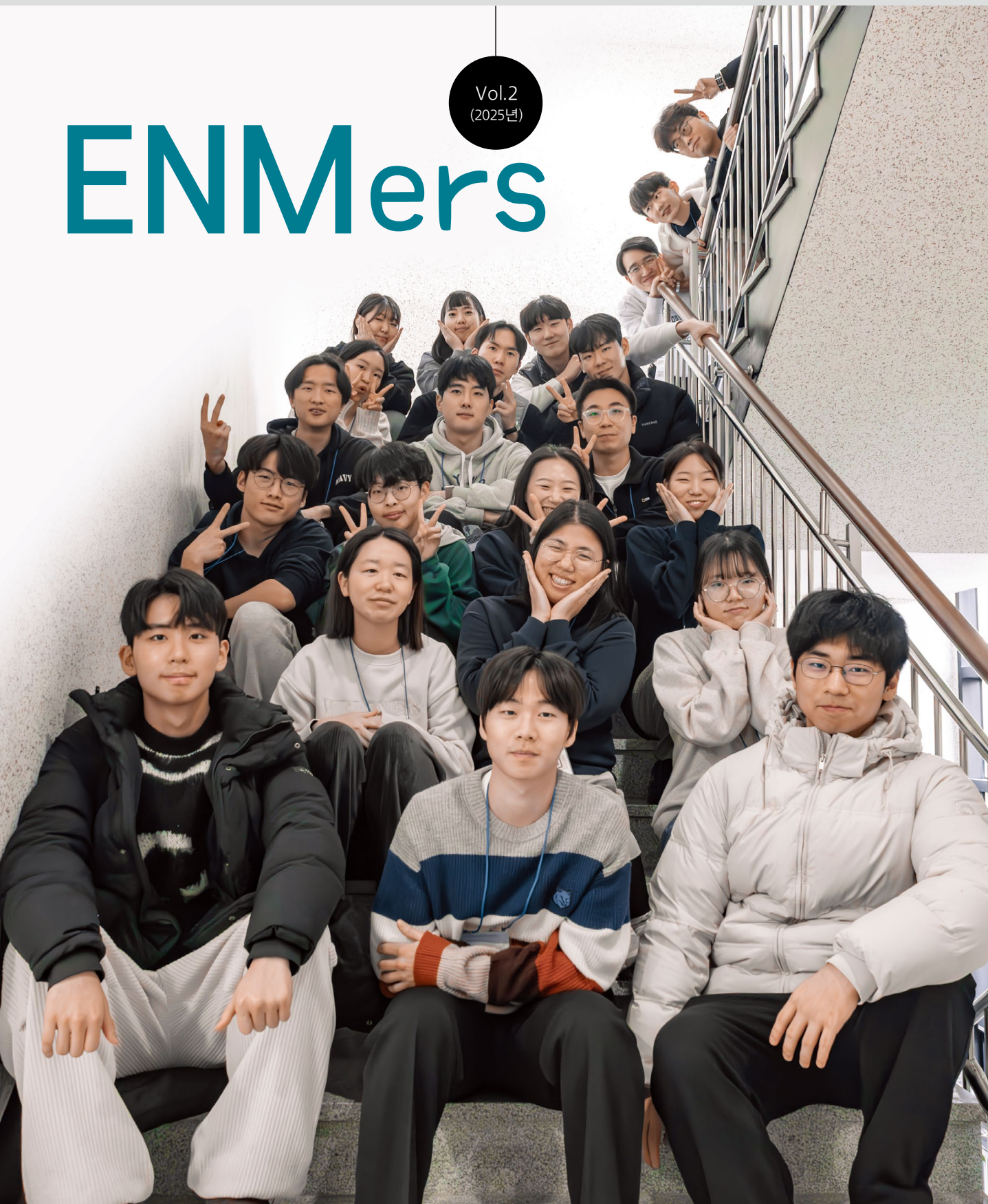


# ENMers

Vol.2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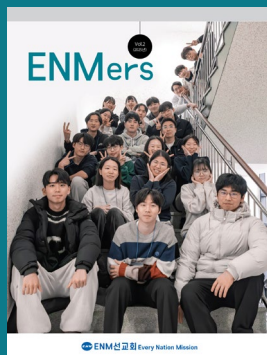


**ENM선교회** Every Nation Mission

# ENMers

Vol.2 (2025년)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발행인 강승관  
편 집 안창규  
디자인 (주)디자인글로리



| 표지 부산지부 캠퍼스 공동체

# Contents

## ENMers 칼럼

- 4 방향 | 강승관 회장
- 6 약속의 주님 안에서 | 조형석 고문
- 8 은퇴세대가 남긴 유산 | 최준모\_울산지부 대표
- 12 개화기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 | 이홍재\_구미A지부 간사
- 16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 | 안창호\_광주A지부 간사
- 19 한번 더 일어나라 | 장윤현\_서울B지부 대표

## ENMers 간증

- 20 영국에서 보낸 지난 20년 | 박철관 선교사\_광주지부
- 25 포구나무 위에서 | 한홍조\_구미지부 간사
- 28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 김재욱\_광주지부
- 30 구원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 | 현숙희\_서울지부 간사
- 34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 양인숙\_부산지부 간사
- 36 주님이 주신 땅 | 한동빈\_서울지부 간사
- 38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 홍선아\_부산지부
- 41 부모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 이경선\_부산지부
- 44 내가 바뀌니 전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 이유정\_서울지부
- 46 산복도로 빨래방 토크 | 윤선주\_부산지부
- 48 기도의 하루와 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망하며... | 오병일\_서울지부 간사

## ENMers 소식

- 50 ENM 지부 이야기 | 부산지부
- 56 광주 ENM 유치부 이야기 | 신창호, 전향옥 부부\_광주지부
- 60 2024년 ENM 정기총회 스케치 | 본부 사무국
- 63 ENMers' Memory

## 방 향 (方向)



강승관 회장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전 9:26)

한때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눈보라를 뚫으며 알프스 산에 오른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어? 이 산이 아닌가 봐.” 허탈한 병사들은 그 산에서 내려와 바로 옆 산으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다시 말합니다. “어? 아까 그 산이 맞나 봐!”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빠를수록 좋고, 택배도 로켓배송이 되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단 몇 초만에 보낼 수 있으니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속도와 경쟁에서 뒤처져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도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최소한 일 년에 일독은 해야 하고, 전도도 그 열매가 많아야 하며, 교회도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각각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빠른 속도로 틀린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느린 속도보다 더 해롭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맹렬한 속도로, 그러나 전혀 틀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앞으로 몸을 돌리고, 그분을 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향해 그의 인생을 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열정적이지만, 아직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달음질하기를 항방(방향)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고전 9:26)”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분을 따르는 길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있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잊어서 방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께서 천국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ENMers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ENM의 ‘사명’입니다. **ENM의 사명은 ‘주의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일꾼이 되고, 그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루, 일 주일, 한 해가 이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침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시간, 인간관계, 재정, 심지어 영적인 활동들도 이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ENMers 여러분, 2025년에는 “어 이 산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이 산이 확실히 맞아”라고 소리치며 산을 열정적으로 오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오르시고 우리가 더 빨리 오르도록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약속의 주님 안에서



조형석 고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겔 36:37)

광주교제에서 리더십으로부터 성경공부, 성경암송, 경건의 시간, 다리에화 전도방법 등을 배우고 난 후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후에 근무지 배치에 대한 기도 중에 이전에 잠깐 들었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생각 하면서, 시 37:4-6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자매가 탱크를 무서워하여 전방은 안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3개월의 훈련 후에 배치된 곳은 수원 가까운 사단 의무대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수원지부 리더십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고 배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은 누군가와 성경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서 기회를 주셔서 의무병 2명과 군의관 1명과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군 입대 시에 어느 분이 주신 말씀 창 28:14-15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유익하도록 인도해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군의관 근무는 1년 후에 재배치가 되는데, 군의관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대도시 군 병원 급인데, 수원 근무경력 점수로 절대 불가능한 기대여서 잔류 신청을 내고 그대로 수원에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육본에서 외과 군의관 차출 명령이 내려와서 신청했고, 한 달 후에 국군 부산 병원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인사여서 감사하면서도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부산 병원에는 각 과의 전문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고,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인도하심에 놀라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을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를 만나기 위해 기독교 장교회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함께 부산 교제에서 배우면서 양육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하셨습니다. 부산지부 리더십의 잊을 수 없는 많은 사랑과 관심과 가르침은 부족한 우리에게 큰 배움이었고 큰 은혜였으며, 비전에 눈을 뜨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2년 근무 후 제대할 때가 되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창 28:15)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나에게는 주셨다고 여기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광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함을 보게 되며, 창 22:16-18 아브라함 약속을 생의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 약속과 관련됨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정생활, 사역과 선교, 직장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침 경건의 시간에 약속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이 있기에 평안, 확신, 기대, 인내, 위로, 기다림, 드림,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고, 주님 나라 비전, 세계비전, 재생산의 비전, 한 사람의 비전에 드러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광주에 왔을 때 리더십께서 의료계 의사 그룹의 사역을 맡도록 하셨고, 그 후에 3개의 팀으로 사역하면서 팀명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 A,B,C 팀으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의료계가 팀명을 누가팀으로 하고 6개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겔 36:37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먼 산보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약속해 주신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약속 받은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후로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은 은혜이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도록 합니다. 창세 전부터의 구속 언약, 창조언약, 아브라함언약,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주님의 주권으로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은 은혜이고, 은혜는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일생을 정리하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4:7,8절 말씀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해 주신 대로 이뤄주시길 주님께 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은 선하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증거 하는 삶에서 영적 전투와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마라톤 경기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는 믿음의 창시자 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붙들리고 안기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날에 즉, 주님 재림 시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봅니다. 주님 주신 의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인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의는 그날에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 보증이고, 의를 얻고 의를 얻게 하는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ENM 선교회에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이번에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노벨상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삶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상도 없겠으나, 그날에 세상의 어떤 큰 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지금도 누리며, 약속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 세계비전 (World Vision)

### - 은퇴 세대가 남긴 유산(1) -



최준모\_울산지부 대표

2000년 ENM 창립자 1st세대 사역자들(변희관, 한경일, 오안도)이 모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2nd세대 사역자 중에서도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3rd세대 사역자들이 지부사역을 이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1st세대 사역자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사역의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기는 이 중요한 작업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터인데, 2nd세대 사역자인 필자가 이 작업에 강한 책임을 느끼다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1st세대 사역자가 남긴 유산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들이 품고 사역한 비전인 '세계비전'입니다. 지금 ENM이 파송한 선교사 현황(25개국, 121명)을 봐서도 1st세대 사역자들이 이 세계비전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필자가 1st세대 사역자들로부터 너무나 많이 보고 들었고, 지금도 제 마음 깊이 품고 사역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정리하고 1st세대 사역자의 검증을 거쳐 ENMers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 속,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9:36-10:1)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가지신 비전,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리를 보시고...” 여기 “보시고”는 예수님이 단순히 일어난 어떤 사실을 보신 것으로 ‘시아’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깊이 있게 보셨는데, 이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 보셨는데, 이것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 문제의 ‘해결의 원천’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결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원리를 세우고 방법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터를 향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순히 바라보는 ‘시아’에서 시작하여, 그 사람들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 그리고 그들의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내다보는 ‘전망’을 가지고, 마침내 그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추수터로 파송한 것처럼, ‘내가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또 어떤 이는 ‘내가 이 비전을 품고 일꾼을 키워서 추수터로 보내야겠구나’ 라며, 비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비전, 세계비전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단지 비전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불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역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 오래 기다리며, 끝까지 그런 비전을 갖고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질 때 이 땅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비전은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1st세대 사역자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며 후세대를 훈련하셨고,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추수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배우며 품고 사역하면서 만들어진 [세계비전의 지도서와 원리]를 정리하여 남기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은 지금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서 듣고 배우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계속)

## 지도서 - 세계비전(World Vision)

### 1. Objective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비전과 연관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며, 기도와 헌금을 통해 이 비전 성취에 동참하게 한다.

### 2. Activities

- 1) World Vision에 관한 성경공부를 같이하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참고) SCL 6권 5과(Nav.press)
- 2) [시대의 요청-Nav.press]을 같이 읽고 토의한다.
- 3) 대사명(Great Commission)에 대해 가르쳐 주고, 대사명 성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한다.
- 4) 세계비전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 ◆ 자료 - 세계비전의 원리
- 5) 그에게 World Vision에 관한 나의 확신 및 활동을 나눈다.
- 6) World Vision을 가진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7) 세계 각국의 종교적 환경, 선교사 활동 등을 나눔으로 세계선교에 관심을 갖게 한다.
- 8) 세계지도와 기도제목을 구하여 같이 기도한다.
- 9) 세계선교를 위한 헌금계획을 세우고 선교헌금을 시작하게 한다.
- 10) W.Vision이 나의 Vision이 되게 Vision과 연관된 활동을 하게 한다.  
예) 기도, 전도, 양육 ...
- 11) W.Vision과 관련하여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 12) W.Vision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재생산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
- 13) 주된 활동지역에서 W.Vision을 품고 전도와 양육에 드리도록 도와준다(행1:8).
- 14) 기도와 헌금으로 세계선교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게 한다.
- 15) World Vision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시켜 준다.
- 16) 비전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도와준다.
- 17) 메시지나 워크샵으로 [일꾼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준다.
- 18) W.Vision과 관련하여 <사 6:8> 말씀에 헌신하도록 도와준다.
- 19) 한두 나라를 정해놓고 선교정보를 입수하며 기도하게 한다.
- 20) 선교사들의 전기나 선교에 관한 책들을 읽고 토의한다.

### 3. Evaluation

- 1) World Vision에 대한 자기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즐겨 나누는가?  
(왜 당신은 World Vision을 갖고 생활하는가?)
- 2) World Vision을 갖기 전후,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 3) 현재 활동이 World Vision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 4) 세계선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 원리 - 세계비전(World Vision)

### 1. 세계비전이란?

-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마음에 품고 대사명 수행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마 28:19,20).

### 2. 예

#### A. 성경적 예

- 1) 아브라함 (창 12:1-3)
- 2) 예수님 (마 28:19,20, 행 1:8)
- 3) 바울 (행 26:17-21, 딤후 2:2)

#### B. 일반적 예

- 1) 겨자씨 비유 (마 13:31,32)
- 2) 누룩 비유 (마 13:33)
- 3) "땅콩을 구하지 말고 대륙을 구하라" - 도슨 트로트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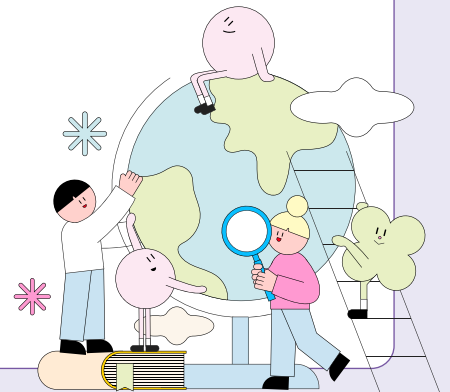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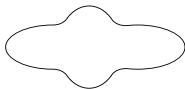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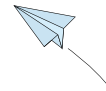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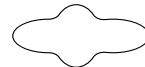


### 3. 왜 세계비전을 가져야 하나?

- 1) 예수님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마 28:19,20, 행 1:8)
- 2)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요 3:16, 사 11:9, 합 2:14)
- 3) 주님의 시야를 갖기 위해 (마 13:38)
- 4) 주님과 잘 동행하기 위해 (암 3:3)

### 4. 어떻게 세계비전을 가질까?

- 1) 세계 추수터를 위해 기도한다. (마 9:36-38, 시 2:8)
- 2) 구체적으로 내 주위부터 전도하고 양육에 드린다.
- 3) 비전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한다. (창 14:14, 잠 13:20)
- 4) 선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헌금한다.
- 5)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정기적으로 받고 위해서 기도한다.



# 개화기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

: 의료와 교육을 통한 복음의 여정



이홍재\_구미A지부 간사

35년 전, 서울지부에서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의료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료사역의 필요성을 새롭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을 읽으며 개화기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삶을 되새기며, 그들의 교훈을 현재의 선교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화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되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 I.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은 개화기 선교사들의 사역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개화기 조선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복음이었고, 이를 들고 온 이들이 개화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천대, 멸시가 만연한 이 땅에서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를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종교적 사명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사역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펼쳤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와 불교가 혼재된 사회였고, 전근대적인 미신과 잘못된 관습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은 한 줄기 빛처럼 들어와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선 선교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 선교사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조선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가르침(교육)과 치유(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 II. 교육과 의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

당시 한국은 궁중에서 선교 목적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만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건강과 제도 면에서 외세에 의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로 인해 소망이 없고 미개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기초가 다져지면,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나아가 한국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 1. 의료 선교: 육체와 영혼의 치유

의료 선교는 조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 1) 미신과 잘못된 관습 타파

당시 조선에서는 질병을 마귀의 소행으로 여기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을 꾸닥거리나 무속 행위로 치료하려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곤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며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러스 알렌 선교사는 갑신정변 당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일이 아니라, 조선의 의료 발전과 복음 전파를 위한 제중원(현 세브란스병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영익을 치료하는 알렌  
1904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텔레그래프 신문에서 호레이스 알렌에 대한 기사를 실었을 때의 삽화이다.  
제목이 'Horace N. Allen. The First American in Korea'

#### 2)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은 계층과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모두를 돌보며 복음의 보편성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노고단에서 콜레라 환자를 돌보다 순직한 선교사들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고종 황제를 포함한 왕실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최하층의 천민들까지 치료하며 선교사들은 복음의 진정성과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의료 활동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3) 생활 방식의 개혁

선교사들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만연했던 음주, 흡연, 도박을 금지시키며,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교도적 삶의 규범을 통해 조선 백성들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 2. 교육 선교: 새로운 세대를 세우다

교육 선교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동시에 조선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1) 여성 교육의 선구자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에서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실천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 2) 민족의 정체성 강화

선교사들은 한글을 체계화하고 성경을 번역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글 문법을 정리하고, 복음을 조선인의 언어로 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매개로 한 성경 번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의 문자 해독률을 높이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왕실과 복음의 만남

명성황후의 시의(侍醫)였던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전날 명성황후와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며 복음에 대한 왕비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조선의 왕실과 복음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 ※ 민비 명성황후가 시의(侍醫)로 있던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와 나눈 대화 기록

왕비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를 불러서 우리의 위대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원과 의미, 그리고 축하하는 방법 따위를 물었다. 누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들의 합창과 별들에 대하여, 그리고 말구유에 누운 어린 아이에 대하여, 속죄받아야 할 버림받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원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왕비는 깊은 흥미를 느끼며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때때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임금과 세자 쪽으로 몸을 돌려 지극히 활기차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내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며칠 뒤 왕비는 미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묻고는 웬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를 보일 기회를 한 번 얻게 되었다. (중략)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해지며 따라서 이 나라를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왕비는 사려 깊게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나, 그 일로 왕비에게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지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언더우드,  
가운데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언더우드의 아내)

### 3. 지역별 복음 전파: 미국 북부와 남부 교회의 한국 선교

미국 북부와 남부 교회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한국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교육, 의료,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미국 북부 교회, 특히 장로교는 평양과 서울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설립해 한국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중원(현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화학당을 통해 여성 교육을 제공하며 성별 불평등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 주로 감리교와 침례교는 전라도, 경상도,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개선과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신뢰를 얻었고, 부산에서는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남부 교회는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 고백을 강조하며, 감리교는 사회적 봉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요약하면, 북부 교회는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에 집중한 선교를 펼쳤고, 남부 교회는 농촌 지역과 항구 도시에서 지역 사회 발전과 신앙을 강조한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두 교파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에 맞춰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III. 복음의 전파와 헌신

복음은 단순히 영적인 변화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화기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함께 돌본 방식은 정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었고, 저도 그 정신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립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했던 일은 단순히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이 오늘날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음을 느끼며,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날 교육과 의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신을 본받아, 저도 그들의 삶과 사역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창호\_광주A지부 간사

성령 하나님께서 글을 쓰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 창간호를 접하며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가 생각이 난다. 필자는 오랜 기간 군에서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특수직종인 군 선교 사역을 하고 퇴직하였다. 재직기간에 전문적으로 교범을 연구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창간호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편집을 하여 초안을 만들고, 교정을 통해 최종 인쇄를 하여 발간 배포하기까지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원고요청을 받고 과거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생각나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최근 구약성경 역사서를 의미 분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글을 쓰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계시서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피조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하나님의 자녀)와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져 알고 싶어진다.

### 첫째. 성경해석의 원리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리와 체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원리와 체계는 ① 성경전체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구약은 여호와와의 언약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다. ②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내용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③ 언약과 성취의 주제는 구약은 그리스도 언약이며,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이다. ④ 구약성경의 중심주제는 하나님 여호와이며,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성경의 기록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하심에 있다.



## 둘째. 복(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세가지 복(언약)을 주신다. 창조는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시공형의 세계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 ① 생육번성 ② 땅 정복 ③ 다스림이며, 이 복은 아담에게 세우시고 노아에게(창 9:1)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창 12:1-3) 그의 아들 이삭(창 26:2-4)에게 또한 야곱(창 28:3-4)에게 동일하게 계승되어진다. 이처럼 복(언약)이 계승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 셋째.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선택과 유기)의 기원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의 나라에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쫓겨나게 하신 후에 두 아들이 출생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요구하신다. 가인은 곡물을 아벨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다. 왜 아벨의 제물만 선택하여 받으시는가?

아담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는 짐승 제물이 요구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신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죽인 후 피를 내어야지만이 만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체할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제물의 용도를 규정하셨다. 제물은 제사의 필수품으로써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물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세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명문화되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짐승제물의 제사는 지속된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타락성은 가인에게서 고착화된다. 가인은 제물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물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살해한다. 분노는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음에 대한 표현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형성되어 죄인된 결과이다. 제물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권이며 제사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기점으로 선택과 유기(유기)의 사역을 적용하신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인류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지만 선택받은 아벨과 그 후대는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통한 『생명』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물 선택의 근원은 아담의 범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옷을 입히심이며 이에 근거하여 아벨의 제물만 선택받게 된 것이다.

## 넷째. 족보를 통한 선택적 사역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인의 족보이다(창 4:16-24).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 하나님을 떠난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왜 가인의 족보가 먼저 기록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행위를 선택과 유기(유기)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유기(유기)의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며, 죄인으로 하여금 항거할 수 없는 근거가 됨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에노스로 족보가 이어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신 복(언약)대로 혈통을 계승하신다.

두 번째 족보는 선택적 혈통인 아담의 족보이다(창 5:1-32). 일반적으로 가인의 족보를 기록했으면 다음에는 아벨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벨의 족보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아담의 직계로 규정하심이며, 아담의 직계에서 가인은 완전히 버려진다. 특히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언급하고, 아벨 대신 셋이 출생하였을 때에도 자기(아담)의 모양 곧 자기(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한다(창 5:3). 이는 아담이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시하고 셋 역시 아담의 모양 즉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승되는 혈통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인에게는 살인자의 혈통이 강조된 반면 아담의 후손인 셋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각시킨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 죄인으로 출생하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가인은 죄를 통해 버리시고 아담과 셋으로 계승되는 하나님 형상의 혈통은 죄 중에서 선택하심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표현 방식이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에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는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선택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족보로 계시된다.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아담과 가인의 혈통의 구분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선택적 구별과(창 6:2), 이후의 족보를 통해 노아가 출생하고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족보 그리고 룻기의 다윗의 족보와 역대기서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나누고 싶다. 결국 이러한 족보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1)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질문 2) 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 되었는가?

질문 3)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한 번 더 일어나라!



장윤현\_서울 B지부 대표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질 때, 그것을 보고 우는 부모는 없다.  
넘어진 아기는 우는데, 보는 엄마는 웃는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잘했다고 칭찬하며 또 걸어보라고 한다.  
넘어지는 횟수만큼 걸음마를 빨리 배운다는 진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의 10대는 반복되는 시험과 점수 앞에 무너지고 넘어진다.  
왕따 문화와 싸워야 하고, 열등감에 무너진다.  
등수와 점수에 실망하고 엄마의 작은 야단에도 흔들리고 넘어진다.  
넘어진 것도 아픈데 야단까지 맞아야 하겠는가?

한국의 20대 30대는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대학 입시 전쟁에 실패하면 재수를 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스펙과 전쟁을 한다.  
졸업하면 취직 전쟁터에서 취직되는 그날까지 무릎을 꿇는다.  
사랑도 전쟁터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눈물을 흘린다.

마음이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아플 시간이 없는 40대!  
아무리 울고 싶어도, 소리 내어 울어 보지도 못하는 50대!  
넘어짐이 없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없듯이  
신앙도 인생도 넘어짐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숙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하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나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준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 24:16**

성경은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넘어진 채로 그대로 머물다가 인생을 마무리 한 사람은 없다.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다.  
다윗이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확실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진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다.

같은 실수를 7번이나 하는 사람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더 일어서라.

## 영국에서 보낸 지난 20년

박철관 선교사\_광주지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 이렇게 5명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박철관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간증을 읽는 분들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의 쉼을 얻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04년 10월에 TV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가난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당연히 국내 취업을 기대했던 저에게 영국의 언어연수는 정말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듯,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저는 급히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이 지나고 나서야 이 땅으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년의 언어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런던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 언어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으며 시작한 런던의 첫 직장 생활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전에 일하던 직원들은 비전이 없다며 모두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정적으로도 회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요?'라는 원망 섞인 기도로 매일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열악한 상태의 회사를 통해 저를 사업가로 준비시켜 주셨고, 또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 중에서도 하나님이 5년 취업 비자를 그 회사를 통해 받게 해 주신 것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비자 취득은 나중에 제가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밤하늘에 별처럼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더 상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받은 월급이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결혼 후 영국에서 차린 신혼집은 조그마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받고 떠난 기쁨도 잠시, 우리 부부는 신혼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 직장으로 매일 출근했고, 아내는 낯선 외국 생활에 바깥출입이 쉽지 않았고, 퇴근하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월급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으니 정말 '광야 생활'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에 삶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잠자리에 들 때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누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딸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때 섬기는 한인교회 성도들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놀랍게도 제가 하는 일에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월급도 인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정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십일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일조 하고 나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월 믿음으로 헌금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다 보니 약 5년간 쌓인 빚이 나중에는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저는 퇴근 후 그동안 배운 사업 수완으로 고급 미용 가위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잊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한 전시회에서 미용계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Tony & Guy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게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 회사의 전시회 부스에 가서 구매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자신을 Tony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Tony & Guy의 Tony를 만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회사에 상당 기간 고가의 가위 공급을 하는 특별한 복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을 받을 무렵에는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고, 급기야 그동안 쌓여왔던 빚 모두를 갚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마이너스 통장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창세기 30:30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7년째 접어들 때,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제가 심한 병을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신명기 15:12 말씀을 통해 이제는 충분히 성장한 회사를 떠나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0:30절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 이제는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와의 이별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이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 하나를 구매했고, 아이들 방 한구석에 책상을 놓고 조촐하게 사업의 닻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를 떠나면 곧 망할 것이고 그때 가서 돈 빌리러 오지 말라’는 회사 사장님의 예언과 달리 하나님은 이 사업을 점차 축복해 주셨습니다.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4

아이들이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의 지경을 넓혀 주셨던 하나님이 셋째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런던 근교에서 방 두 개가 있는 집에 살고 있던 우리는 높은 생활비로 인해 다른 지역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4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인타운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 파트너를 통해 차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밀턴킨즈라는 도시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도시의 집을 몇 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우리 가족의 필요에 잘 맞는 마지막 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사를 바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한인 교회와 커뮤니티를 떠나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훈련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도시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년 정도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사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집에서 가까운 Loughton Baptist Church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조금 늦게 임신한 아내와 어린아이 둘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갔고 우리는 가장 앞자리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와 저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쯤 지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를 순산하였고, 영국 교회 성도들은 매일 순번을 정해 우리 집에 음식을 배달해 주며 섬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달리 우리는 그분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교회에서 ‘How are you?’ 하고 서로 첫인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낯설었고, 한인 교회만 섬기다가 온 우리도 그들과 언어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Cell Group 모임을 매주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어설플 영어로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도 많았고, 또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올 때는 당황스럽고 자책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는 마음, 아마 그 선교적 마인드가 그때 우리를 견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가면서 어느덧 제 말문은 더욱 트여갔고, 듣는 것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교회에서 점점 섬길 기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Cell Group을 참석하는 사람에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아이들 사역에 동참하고 또 방학 기간을 이용해 Children 사역을 정기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해가 지나면서 저에게는 Deacon으로 섬기는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영적 성장과 교회 필요를 위해 더 기도할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음을 같이 한 나이지리아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교회 성전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길거리 전도하는 팀멤버가 되어 5년 정도 전도팀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반을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히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늘 언어와 문화적 한계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락함을 받아주고 격려해 주는 몇 성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말한 모든 사역과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신학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목사님에게 저의 그런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며, 자신이 구상 중인 설교자 코스에 저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영국 교회에서 설교하는 특별한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약 6년 정도 영국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시키셨고,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태복음 13:31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준 그 집에 언제부터인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 곳곳에 분비물을 흘리고 자국을 남기고 다니는 민 달팽이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에 흔적을 남기고 가는 이 불청객을 보면서 점점 이사에 대한 생각이 커져 갔습니다. 때마침 멀지 않은 곳에 새집들이 지어지고, 약 4천 가구가 사는 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그 지역으로 이사하는 몇 가정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 아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임대한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을 산다는 것, 더욱이 교회 개척에 동참하는 사실에 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믿음의 발을 떼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셨고, 먼저 시도했던 첫 집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시도 끝에 지금 사는 지역에 새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된 이 기쁨은 우리만의 경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다른 다섯 가정과 함께 파송을 받아 교회 개척이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에 Whitehouse Church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기간으로 2년 정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약 3살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는 어른들과 아이들 포함 약 70~8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교 주택 건축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런던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정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교회 내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개척 첫 예배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필요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서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성경 읽기 모임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두 명의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보게 해 주셨고, 이 마음은 지역 땅 밟기 기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섬겼던 이 기도 운동이 지금은 담임 목사님 주도하에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동역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로 지쳐 갈 때, 주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 저를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첫 장로 선출 때, 대다수의 교회 멤버들이 저를 장로로 지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이 너무 특별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임기 3년 중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잘 섬임 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18

끝으로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하면서 사무실은 늘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월에 사무실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문을 닫는 무수한 사업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 사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 주셨고, 자체 건물까지 구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앞날이 어떠할지 생각해 봅니다. 훌쩍 성장한 세 딸과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해 봅니다. 하는 사업과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솔직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겨자씨만 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심으셔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땅밟기 기도 사역
2. 성경읽기 모임 사역
3. 여름성경학교 사역
4. 하우스 그룹 사역
5. 사무실 구입



## 포구나무 위에서

한홍조\_구미지부 간사



나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포구나무가 되고 싶고, 포구나무의 그늘이 되고 싶다.

2024년 추석 연휴.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다. 통영의 작은 촌마을이지만 내게 있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아련한 추억들이 밤하늘의 쏟아질 듯한 별들만큼이나 잔뜩 묻어 있는 곳이었다. 특히 부모님의 묘소도 거기에 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기에 돌아가셨기에 이미 대학생이 된 두 자녀는 한 번도 친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어릴 때 명절에 가족이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간 적은 있었지만, 아이들 기억에는 묘가 있는 장소도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여튼 오랜만에 가족들과 고향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좀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갑자기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기억이 나서 흥얼거리기도 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은 동네 아이들과 줄곧 모여 놀았던, 여름이면 무슨 명당자리처럼 약속이나 한 듯 모였던 그 포구나무 아래에 서 있다.

기억 속 포구나무(팽나무)는 제법 큰 나무에다 튼튼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포구나무에 오르면 해안선을 따라 양쪽 끝으로 둥글게 오므리고 있는 바닷가 풍경과 마을 앞바다가 흰히 잘 보였다. 포구나무 아래로는 마을과 다음 마을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있어서 종종 이 길로 지나가는 짐 실은 작은 용달차가 뿌영게 흙먼지를 내며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구경하곤 했다. 근해 고기잡이로 바다에 나가셨던 동네 어른들이 포구 선창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바다 저 멀리서부터 배에 장착된 디젤 엔진소음이 파도를 가르며 또 파도를 일으키며 위엄차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포구나무 위에서의 또 하나의 소일거리였다. 특히 아버지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땐 갑판 안에 잡혀 있을 물고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괜히 신이 나기도 했다.

포구나무 때문인지 어릴 땐 나무를 제법 잘 탔다. 혹 미끄러져 떨어져도 언덕 아래쪽으로는 대나무밭이 있어 오래 쌓인 대나무 이파리들로 충을 이루어 폭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겁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것이다. 몇 그루가 이어 서 있는 포구나무 한쪽에는 어른들 몰래 친구들과 함께 가로로 흙을 내어 자라고 있는 자기 키를 표시하기도 하고, 새총을 만들어 포구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새를 겨누고 주몽같은 마음으로 쏘아 보지만 번번이 놓치며 에구~ 탄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여튼 내가 살던 곳은 통영 구석에 있는 촌마을이었다. 그래서인지 대중버스가 처음 들어오는 시기도 한참 걸렸다. 다만 ‘동성호’라는 배가 있어 하루 한 차례 통영의 항구까지 왕복을 했다. 이것도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 너울이 크게 일면 취소되곤 했다. 혹 부모님이 이 배로 아침에 시내 가는 날이면(통영은 바다에 위치한 도시라 가능하다) 오후에 동성호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한량없이 기다려졌다. 맛있는 것도, 과일도 사셨을 것이고, 혹 내 운동화나 옷이나 새로 나온 연필깎기나 샤프도 사 줄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과 함께 포구나무를 몇 차례나 오르락내리락했다.

사실 기다리는 동안도 그리 외롭진 않았다. 포구나무 아래로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덧 네 다섯이 넘었다. 함께 딱지도 치고 구슬로 훌쩍 놀이도, 고무딱지 놀이도 하고 수다를 떨거나 과자를 나눠 먹기도 했다. 그러다 누군가 훌쩍 포구나무에 올라 먼 바다를 가리키며 “우와~ 동성호 온다!” 외치면 반쯤 구겨신고 있던 신발도 고쳐 신고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탈 털고 무슨 달리기 시합 마냥 뛰쳐나간다. 과연 무엇을 사오셨을까? 혹시 며칠 전 즐랐던 그걸 사오시지는 않았을까? 헤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입꼬리를 올릴 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떨어진 선창가에 닿았지만 작은 걸음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아직도 먼 선창을 향해 울퉁불퉁 신작로를 부리나케 달리고 있었다. 이때는 점심 먹은 지 제법 시간도 지났고, 늦은 오후 해도 제법 기울어진 시간이라 허기도 지고, 나무에 매달리며 논다고 힘도 많이 빠져서인지, 그날 따라 배가 닿는 저놈의 선창은 가까워질 줄을 몰랐다. 그러나 동성호를 맞으러 뛰어가는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까닭 없이 웃고 헤헤거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한 번은 집에서 아주 혼이 났다. 집을 나오니 자연스레 포구나무 쪽으로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나무 옆에서 걸음이 멈췄다. 그냥 마을 길을 걸으면 울어서 눈이 좀 부은 것과 아직 촉촉이 고여있는 눈물을 동네 꼬마들이나 같은 반 여자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본능적으로 포구 나무 아래로 향한 것이다. 그 나무 아래서는 나무 그늘이 얼굴을 가려주기에 눈 부은 것도 눈물도 숨기기에 딱이었다. 혹시나 가까이 오는 동네 꼬마 녀석이라도 있으면 포구 나무 위로 경충 뛰어올라 좀 더 높은 가지에 올라 걸터 앉으면 그만이었다. 혹 포구나무 가지에 혼자 걸터앉아 있을 때는 멀리 바다를 보며 막연하나마 과거의 나를 생각하기도, 미래의 나를 바라보기도 했다.



| 그림 한홍조 (구미지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짐차가 지나가니 방죽길이 흙먼지로 뒤덮인다. “아이고, 아래 할머니 길가에 명석을 깔고 청각(파래) 말리고 있을텐데 먼지 다 뒤집어 쓰겠네....” 그럴 땐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괜히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포구나무 아래나 위는 언제나 나의 기쁨과 걱정, 눈물과 위로, 실망과 기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나의 작은 등지였던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나무 아래, 이 나무 위에서 눈물을 삼켰었다. 그때 어머니 속 썩여 드리지 말고 한번 더 안아 드릴걸.... 그때 아버지께 더 멋있는 아들 모습 보여 드릴걸.... 담장 하나 옆집에 어느 순한 아저씨네 가족들이 사셨는데, 어느 날 아저씨가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가셨다 풍랑에 배가 가라앉아 며칠 만에 주검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아저씨께 인사 더 잘할 걸 그랬어.... 포구나무 위에서 이래저래 아리게 후회한 적도 있었다. 이제는 깨나무 단을 머리에 이고 멀리 걸어오시는 내 어머니의 모습도, 멀리서부터 물살을 가르며 들어 오는 익숙한 고깃배도 더는 볼 수 없음에 나의 포구나무는 그렇게 그늘져 있었다.

작년 추석 연휴, 오랜만에 고향길을 지나갔다. 신작로는 이제 곳곳마다 아스팔트 도로가 놓여 있다. 창문을 내리고 운전대를 잡은 채 내심 포구나무를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는 내 모습에 아내는 전방주시 안 하느냐 다그치는 듯했으나 귓가에만 맴돌 뿐이다. 어릴 적 내 마음의 아늑한 등지, 추운 겨울에도 따듯한 아랫목의 이불 속 같은 곳, 햇살 쬔 담벼락의 온기를 찾아 아이들이 모여들듯 나의 포구나무는 내 마음속 그런 존재였다.

언제부턴가 내게 새로운 나무가 생겼다! 이 나무는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생각 속에도, 심지어 내 생명 속에도, 내 생활 속에도 늘 함께 하는 친구와 같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다. 나는 날마다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에 걸터앉았다. 여전히 포도나무는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준다. 단지 포구나무와 다른 것은 포도나무는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이 같은 나는 자주 푸념하고 자주 걱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같은 실수는 피하고 싶다.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은 훗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마음의 생채기가 된다는 것을 안다. 포구나무에서나 포도나무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 내게 가장 부족한 것, 그래서 아픈 것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는 나의 마음의 그릇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그릇을 따라 살게 도우소서! 작심삼일이라 저의 마음의 그릇의 용량은 3일짜리 밖에 안 되지만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기름 담을 그릇을 빌리라 강권했듯이 말씀의 그릇을 빌리고 빌려서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더 바라며 주님을 더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지만, 뱀의 미혹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구원과 치유, 회복과 은혜의 뱀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요 3:14) 새해는 어지러운 이 땅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 위에 주의 구원과 회복, 주의 사랑과 통치로 덮어주소서. 아멘.

나는 나의 포구나무를 추억하고 나의 포도나무를 사랑한다.

나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포구나무가 되고 싶고,

포구나무의 그늘이 되고 싶다. 무엇보다 작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걸터앉을 수 있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싶다. 먼저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 함께 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친근히 옆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김재옥\_광주지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 6:1)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에 합격한 후 학비가 부족하면 그때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침내 영문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대학 가자!”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저는 1980년 9월, 한 친구의 제안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는 외롭고 힘든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성격도 점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졸업 후 미션스쿨에서 15년 동안 영어교사로 근무했고, 이후 영어 전문 학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속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없는 병으로서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평생 친구처럼 안고 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쉼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 속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병이 점점 진행되어가면서 파킨슨병은 제 삶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무력증이 오면 글씨 쓰기도 힘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잠기고, 약효가 떨어지면 제대로 걷기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병은 저를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또 다른 축복을 예비 하셨습니다. 조지 물러가 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백처럼, 저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2013년, 딸아이가 “아빠 저도 성경공부 하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합한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친구를 36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ENM에서 30년 이상 훈련받은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ENM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ENM 공동체 여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 모든 일에 기도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요성경공부 시간은 은퇴한 저의 삶에 질서를 찾아주고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도록 몰입하는 시간이며, 배웠던 내용을 다른 형제에게 가르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또래 형제들과의 점심모임과 산책과 짧은 여행은 서로에게 큰 격려와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과 함께 하는 주2회 테니스 교제는 승부에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병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게 하고,  
남은 사람은 널빤지 잡고 끝까지 버텨서 육지에 도착하게 했던 것을 저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질병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은사를 나누며 살라고 하십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나눌수록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법칙임을 깨닫습니다.

은퇴 후 제 삶의 원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저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자리에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에 진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구원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

현숙희\_서울지부 간사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장하게 하시며, 순종의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평생의 약속을 떠올려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부 청소년 사역군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현숙희 자매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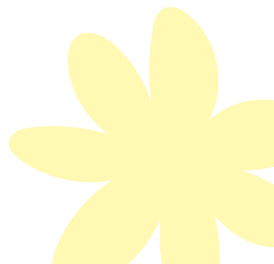
### 성장 배경

먼저 저의 성장배경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남쪽 제주도 서귀포 위미라는 동네에서 불교 집안의 네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듯한 오빠에게 지지 않으려고 욕심을 많이 냈었고, 공부로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대학가기를 반대했던 부모님으로 인해,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제주도에서 대학생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의 길을 가는 학과 친구들과는 달리,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특히 엄마는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저의 고집으로 아빠랑 같이 올라와서 연대와 고대, 서강대 영문과 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 곳의 영어와 전공시험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매우 당황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낙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고대 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벽보판에 붙어있는 제 이름을 보며 기쁘기도 했지만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을 통해 저의 마음을 낮추어가셨고, 구원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엄마는 딸이 어려운 대학원에 합격했는데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왜 얄전히 교사하면 좋은데 대학원 가서 뭐 하려고 하나'고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지내야 하는 서울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분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제주도와는 너무 다른, 삭막하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대학원 공부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재미가 없었고, 낯선 사람들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 말씀대로 '교사의 길을 갈걸' 하며 많이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하숙집 근처에 있었던 숙명여대 도서관에서 전도를 여러 번 받게 되었고,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마음이 달혀있어 받은 전도지를 다 버렸습니다. 고대에서도 당시 네비게이트 자매님들이 여러 번 저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했고, 그때에도 계속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언니가 다가오셔서 긴 구원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성경공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혼자서도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언니를 만나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두웠던 마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말씀대로 제 안에 생명의 빛이 비쳐 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더욱 열심을 내서 교제에 함께 하며 주님을 배워나가게 되었고, 생활훈련과 생활도 하며 성장에 드러나가게 되었습니다.

#### 믿음의 연단

이런 저에게 믿음의 여러 연단도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저의 부모님은 저의 대학원 졸업식 때 오셔서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언짢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내려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감귤 하우스에 갑자기 전기 사고가 나서 수확을 앞둔 감귤들이 다 타들어 가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속과 불교에 열심이셨던 엄마는 이 일이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셨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심한 욕을 하시면서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협박(?) 하셨습니다. 당시 여동생이 임용고시 준비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도 너무 화를 내시는 엄마가 무서웠는지 저보고 빨리 교회 안 나간다고 엄마에게 얘기하라고 옆에서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 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교회 계속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저의 반응에 엄마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팽 끊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저는 두려운 마음도 많았지만, 언니들에게 기도부탁하며,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는 잔뜩 긴장하며 받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엄마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화하시고, 이 일 후로는 한 번도 저의 믿음에 대해 험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의 어린 믿음에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이후로 부모님이 하시는 하우스 감귤 농사였지만 해마다 태풍과 모든 사고에서 부모님의 농사를 지켜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였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를 지금까지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반응들을 기억하시고 넘치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지속해서 저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 평생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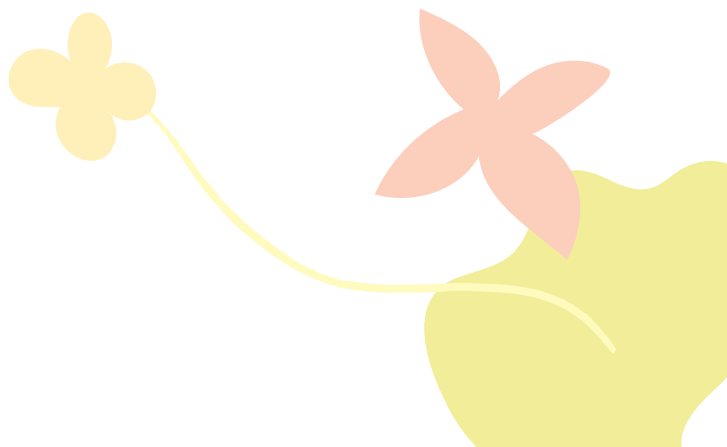
20대 중반에 하나님은 제게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제 평생의 약속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듯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 약속대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장하게 하시며, 순종의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평생의 약속을 떠올려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제님을 만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4장 9-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라는 말씀과 창세기 18장 18-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약속을 주시며,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고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에 소질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던 저에게 청소년 사역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대한 소원도 비전도 전혀 없었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많이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서울 ENM 교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개척사역과 같은 이 힘든 사역을 왜 우리 부부가 해야 하는 건지 많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명을 맡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시며 계속 강권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도 능력도 소질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겠다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제 평생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면서 감당해왔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왔던 지난 10여 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저를 연단해가시며 성장시켜 가셨고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청소년들을 도와나가게 하시고, 청소년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저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순수하게 도와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음과 저를 내려놓게 됨을 통해 놀라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캠퍼스에서 열심히 배워나가는 청소년 사역군을 거쳐 간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하지 않으시고 귀한 열매들로 맺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는 시편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제 평생의 약속과 개인, 가정, 사역에 대한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양인숙\_부산지부 간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바다의 수평선은 그 안에 곡선을 숨기고 있다. 진실은 곡선이지만 직선으로 이야기해야 맞게 들린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멀리서 보는 모양과 가까이에서 보는 모양, 또는 위에서 보는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있다. 24년의 삶을 돌아보았다. 뺄뺄쫄쫄거리는 모습이다. 생각나는 사소한 감사는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다. 캠퍼스 사역을 그만둔 무기력 함이 생각보다 컸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여전히 실패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셨다. 뺄뺄어진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니 그제야 따뜻한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첫 번째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스물세 살의 아가씨는 삶이 고달팠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 고등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 장사를 하며, 야간대학을 다녔다. 삶의 공허함이 있었기에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며 빈 곳을 메우려 했다. 항상 웃고 다녔지만, 불안한 마음과 열등감을 감추고 포장한 것이었다. 졸업 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치르던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날,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피한 곳이 부산대였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예쁜 언니를 만났고 그 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다. 먼지같이 보잘것 없는 나를 창조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이기적인 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 죄로 인한 낙심과 좌절을 딛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다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결핍이었던 과거가 더는 부끄럽지 않았고 새롭게 가진 세상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6)

두 번째는 32년 동안 아름다운 구역에서 누리게 하신 사랑이다.

나는 캠퍼스를 낙원 같은 곳이라 생각했다. 금은보화를 마음만 먹으면 캐낼 기회와 땅이기에 말이다. 그렇다면 그곳의 학생들은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마음껏 꿈꿀 수 있고 시도하고 실패할 자유도 있는 곳이니 말이다. 천국 같은 그곳, 캠퍼스에서 천국 씨를 뿌리는 일을 지난해 6월까지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내가 놓친 기막힌 감사이다. 잠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했다. 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그 기간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빛나는 젊음 속으로 들어가서 청년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지탱해 준 커다란 의미였기에 더욱 그랬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받았음을 알게 하셨다. 여전히 젊은이들을 대하면 가슴이 뒹다. 그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푸른 꿈을 볼 수 있다. 부딪히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방향할 그들이 일어서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로 있기를 소망한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세 번째는 새 일을 여시는 사랑이다.

새로운 목장과 초원을 만났다. 이전에 얼굴로만 알고 지냈던 분들과 개인적으로 알아가면서 목원들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과도 만났다. 여전히 꿈꾸고 있었고, 마음은 청춘들이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생긴 내면의 흉터들은 험한 세월을 견뎌낸 영광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인생길에 톡 들어가게 하셨다. 함께 함으로 강점이 살아나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만날수록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아니라도 보석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그들과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 12:1)

꽃피는 계절이 되면 꽃은 핀다. 당신의 꽃이 피지 않았다면 아직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음이다. 당연히 내리는 햇빛이 감사하다.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당연히 계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입니다.  
나를 꽃처럼 기쁘게 보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 주님이 주신 땅

(작사, 작곡 : 한동빈, Feat. 유중선)

한동빈\_서울지부 간사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6)  
여호와와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수 5:15)

서울 ENM 선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공과대학 입학 후 캠퍼스에서 성경을 배웠고, 지금은 캠퍼스 간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찬양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년 전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성법을 바꿔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원을 찾아가 발성법을 배우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우심을 받아 성대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생애 첫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생 소망 중 하나가 제가 직접 만든 곡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었는데, 저의 악함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어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993년부터 31년 동안 캠퍼스에서 주님을 따르며 배웠습니다. 제가 밟고 서 있는 캠퍼스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결혼 15주년이었던 2020년 8월15일에 그 마음을 담아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곡을 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새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주변, 친구, 친척들이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변화되고 결국은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 주님이 주신 땅

작사, 작곡 : 한동빈, Feat. 유중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이곳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 전하라 하시네  
수없이 스쳐 가는 사람들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공허한 작은 눈빛 속엔 그의 사랑 찾을 수 없네

때론 나의 걸음에 아무 열매 없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약속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소망 가득한 이곳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전부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바로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수없이 스쳐 가는 사람들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공허한 작은 눈빛 속엔 그의 사랑 찾을 수 없네

때론 나의 걸음에 아무 열매 없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약속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리  
주님이 내게 주신 한 영혼, 이 영혼을 통해 주님의 사랑 이 땅에 가득 넘치리

때론 나의 걸음에 아무 열매 없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약속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때론 나의 걸음에 아무 열매 없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약속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 모든 음원 사이트에 앨범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뮤직, 바이브, 소리바다, FLO).

\* 유튜브 [https://youtu.be/rRCjf9SbbEo?si=qSiY6ltx\\_SnwHg9m](https://youtu.be/rRCjf9SbbEo?si=qSiY6ltx_SnwHg9m)

\* iTunes, AppleMusic

<https://music.apple.com/us/album/the-land-you-have-given-me-single/1528670138>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촬영하시면 바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홍선아\_부산지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6)

안녕하세요. 부산지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홍선아 자매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사회적기업인 (주)디자인글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서 쌍둥이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제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작은 기억조차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는 자녀가 3명이나 있는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의 폭언과 아버지의 무능력함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소외된 저와 동생의 삶을 조금씩 조각내고 있다는 생각에 증오와 복수심으로 그 현실을 버티어 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25년 만에 미국에 있는 배다른 언니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한국 방문 소식은 깊숙이 감추어졌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폭언과 언니의 폭행이 다시 현실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눌러놓았던 분노, 원망, 두려움, 미움과 같은 여러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언니와 마주하는 것이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깊숙이 담아놓았던 여러 분노와 두려움의 기억들이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했습니다. 22살에 부산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주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닐 때 갑작스러운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침묵하셨던 아버지.... 어렸을 적 동생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각자 숨겨왔던 지난 과거들을 꺼내며, 지난날의 상처들을 들추어내며 분노했고, 급기야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남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은 묵묵히 저의 분노를 감당해 주며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5: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용서가 안되는데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고, 동생의 권유로 인해 저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니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 언니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가면 저와 동생에게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장녀로서 살아온 어려웠던 언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향해 닫혀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니의 한국 방문 후 23년 12월쯤에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로 그냥 이유 없는 눈물과 지난날의 복잡한 감정들로 가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힘들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깊은 우울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더 자매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든 면에 지쳐버린 번아웃 증후군인 것 같이라며 한주에 하루를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계속 일을 해온 저는 몇 년 전부터 쉬고 싶다는 생각과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감정의 변화를 겪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꼭 힘이 필요하다고 권유해 주었고, 직원들 또한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사무실 업무를 줄이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NM수요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나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성이 채워져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를 회복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고 나의 감정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전 10:13)**

24년 3월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혀서 검사를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고전 10:13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유방암으로 판정이 나왔지만 주신 말씀으로 인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녁에 목사님 부부께서 집으로 찾아오셨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김기형 형제님의 도움으로 외과 진료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저보다 1년 전에 혈액암 4기판정을 받아 치료하고 있는 언니가 1년 선배로서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저의 검사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과 매일매일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깊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물질과 음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으로 많이 섬겨주신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암 판정 후 감사가 된 부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3월부터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회사 업무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번아웃증상으로 올해 1월부터 회사 업무를 줄이면서 모든 업무를 남편과 박소연차장(ENMer)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업무를 신경 쓰지 않고 치료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앞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하루 전날 밤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이 많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았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수술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통화 후 '암 치료 과정 또한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12월에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남편이 추진하여 부산에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니 온전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노년기 고통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신 5:16)"는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고, 제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넓게 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겪었던 감정의 어려움을 어린 시절 그대로 느꼈다면 내가 온전히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상처 투성이 가족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제 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꺼내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약속의 말씀, 이사야40:1-3, 잠언16:9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부모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경선\_부산지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금홍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103:1-5)

작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제 소원을 만족케 하신 주님을 간증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1년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저의 20대는 ENM을 통해 제자의 도를 배우고, 믿음의 언니들과 함께 하면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족단위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먼저 믿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던 즈음 점점 가족구원에 대한 기도는 기대 없는 일상이 되어갔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친자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 O형으로 친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부부싸움과 이로 인한 단순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섬기며, 복음도 나누었습니다. 전도 초청 집회에도 여러 번 초청하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권면에 오시긴 하셨지만 믿지는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믿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급기야 계속 강권하는 우리를 향해 엄마는 남동생을 동원해 다시는 교회 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엄마가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는 말이 두려워서, 제가 예수님 믿어서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말에 두려워 잘못된 기도를 올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 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족구원을 위한 역사를 멈추고 계셨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부모님과 동생을 구원해 주시도록 다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 이후 두 분의 사이는 더 극에 달했고, 급기야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이혼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혼자 지내시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급격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주 하던 대로 예수님 믿으시라 고 권면해드렸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하면 열심히 한다” 하시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단월드에서 명상과 수련을 하며, 지도자로서 수양시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 믿을 것을 결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아버지를 볼 때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주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을 하고 헤어졌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계속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직장일 마치고 가보니, 아버지는 밤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병원에서는 코로나 확진과 원발 구획중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식 불명인 지금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사를 오가며, 의식 불명의 상태로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시면 불신 가족들은 교회 가서 저렇게 되었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복음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투석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시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 몇 달 간의 병원 생활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배를 매주 같이 드릴만큼 온전해지셨습니다. 이때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신 중보기도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신 ENM의 의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구서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서울에 있는 남동생은 아버지를 돌보는 우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던 남동생과 자주 연락하면서 관계도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신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부와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의 과정을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처럼 권면했을 뿐인데 못 이기는 척 갑자기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와 주신 것이 아니라, 새가족 학교까지 등록하고 빠지지 않고 잘 나오셔서 졸업하고 간증, 세례까지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새 가족 학교를 인도해 주신 이종임사모님과 새가족학교 섬김팀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였을 때에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준비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바꾸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과거 사단은 칠삭둥이로 태어난 저를 의심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네 딸이 아닐 수 있다”며 당숙이 던진 한 마디가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으로 병들게 만들었고, 엄마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 내려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큰 고통까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협력해서 결국 기도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도해 주시는 ENM 가족들, 늘 주일날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시는 유형제님과 자매님, 맛있는 식사 대접으로 어르신들을 섬겨주시는 변형제님, 자매님, 저희 부모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ENM 식구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또 많이 닦여있지만, 결국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바뀌니 전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유정\_서울지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부 캠퍼스 청년2부의 이유정입니다. 저는 요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것은 교제에서 많이 훈련되어서 그리 어렵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잘못했다간 지금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꺼릴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좋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제가 선뜻 복음에 대해서는 망설여지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유익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의무감이 커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공부시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1권을 공부하면서, 자녀가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저 함께 지내면서 관계 가운데 서서히 부모를 알아가듯,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전에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큐티, 암송, 교제, 전도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사귀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일 뿐,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실생활 가운데 인식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임을 봅니다. 그럴 때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을 쓰신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십자가가 그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차라리 너 대신 죽지!’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절규임이 깨달아지겠지요.



| 유기성\_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땐 아무 일도 안 하셨지만, 마리아의 요청으로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신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쉽다고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주님은 저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댄스수업을 1년 넘게 했는데요. 거기서 두 명의 언니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교회 배경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댄스 외에도 신앙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기면 더 친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카톡으로 큐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로 저 혼자서 나누긴 하지만 종종 좋은 찬양이나 관련 글을 공유하기도 하고, 일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 명이 모두 댄스수업을 쉬고 있지만, 큐티 카톡방 덕분에 오히려 관계의 끈이 유지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댁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커서 매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못 했었는데, 지난 구정 때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복음편지와 성경책을 전해드렸고, 얼마 전 아버지 생신 때는 아버지께 복음편지와 용돈을 드렸습니다. 많이 노여워하시진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주셔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에 반응하시진 않지만, 복음과 말씀을 계속 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편지나 글을 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친구 엄마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중 중국 사람인 S 엄마와 특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어리고 영적인 관심은 없지만, 서로 외동인 아이들이 잘 놀아서 주말에 함께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며 알게 된 것은 S의 할아버지께서는 은퇴한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교회 배경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름성경학교 때 S를 초대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매주 예배 후 S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주일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인 얘기를 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나빠질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에 좋은 자극이 되고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필요와 지혜, 마음을 인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말씀 앞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스스로 제한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접어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 산복도로 빨래방 토크

윤선주\_부산지부



나도 빈집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부산에는 도심 산허리를 감싸고 수십 킬로미터의 산 중턱 도로로 연결된 이른바 산복도로가 있다. 부산의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에 걸쳐 있다. 이 산복도로는 나의 삶의 뿌리와의 같은 곳이다. 대학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나는 가끔 인터넷으로 내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보곤 한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산복도로에서 빨래방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기한 마음에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청년들이 산복도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러한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산복도로는 근현대의 역사와 피난 시절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가난과 소외의 대명사인 달동네로 불린다. 그런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빨래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습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어르신들이 빨래방을 잘 찾지 않자 직접 홍보에 나서고, 길고양이를 치료하며 함께 홍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닌데, 수거와 배달까지 직접 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니 정말 놀라웠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산북도로에서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가 조선소 작업복을 입으셨던 모습과 어머니가 수세미로 그 작업복의 때를 박박 문질러 빨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 형제들은 마치 등산하듯 집과 학교를 오르내렸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조기퇴직 후 장사를 하며, 밤에는 이쑤시개 말기나 밤 깎기 같은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셨다. 그래도 우리는 사교육이나 스마트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랐다. 구슬치기나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고, 해 질 녘 바다에 노을이 번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서로 어울리며 놀면서 가난을 모르고 컸던 것 같다.

한편 기자와 피디가 본업인 이 청년들은 근현대를 온 몸으로 겪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세탁비를 이야기로 받는다”고 솔로건을 내걸었다. 산북도로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왜 왔지?” 하는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관도 가고, 오래된 사진 복원과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 청년들을 보면서 점차 이웃이 되어갔다.

나는 빨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을 보면서 지난해에 전도훈련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첫 훈련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토크 문장을 외우고 시간을 정해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 연습했는데, 6개월 정도 되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그분들을 만나며 기도하고 있다.

청년들이 산북도로를 쓰러져 가는 빈집으로 두지 않고, 빨래를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와 온기로 채웠듯이 나도 빈집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며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기도의 하루와 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망하며

오병일\_서울지부 간사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 평일 시간을 이용하여  
초청된 영혼들을 만나 다양한 필요를 채우면서  
정기적인 성경공부 모임으로 초대되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접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팀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이른 새벽에 만나 기도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한 다음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임 시간을 팀에서 “기도의 하루(A day in prayer)”라고 부르고 있다. 기도의 하루가 빛을 발휘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오프라인으로 모임이 허용된 것이 야외이기 때문에 팀 형제들의 얼굴도 보고, 조용한 곳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각자 기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팀 약속의 말씀 사 55:1~5 말씀대로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팀 형제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산밭이나 공원에서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모여서 1시간 30분 동안 시간을 갖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팀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들도 초청하여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형제들끼리 모이다 보니 족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기도시간을 갖고 나서 족구를 하고 난 다음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4년부터는 자녀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초청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데 어울리는 풋살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녀들 때문에 엄마들도 함께 참석할 때가 있다. 맑은 하늘, 넓은 인조잔디, 주변의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운동하는 모습은 마치 팀 MT를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엄마들이 참석하는 날에는 엄마들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팀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응원과 감독을 하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다. 자녀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한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평소 갖고있던 축구 실력을 풋살 경기에 와서 맘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다음 맛있는 식사와 음료를 먹을 때에는 평소 먹어보



지 못한 맛이라 그런지 더더욱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이다. 더 나아가 사춘기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축구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많아진 점은 덤으로 얻는 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운동 후 갖는 식사 시간과 차 마시는 시간은 형제들과 초청자들 간에 친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 K형제는 지금은 주일 교제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함께 열심을 내었던 형제로서 꾸준히 기도의 하루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결혼한 사위를 데리고 와서 유쾌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을 통해 사위도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위는 자기 아버지가 동네 조기축구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풋살 경기때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면 장인과 아버지를 같은 편에 편성하여 경기를 해 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K형제와는 매일 큐티를 주고 받고 있으며, 가끔 만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도 돈독히 하고, 영적으로도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4년 10월에는 부부가 7년 만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C형제는 팀의 형제가 근무하던 회사 후배였고, 불신자이지만 남양주에 살고 있어서 자주 남양주에서 모이다 보니 초청하게 되었고 꾸준히 참석하면서 함께 족구와 풋살 경기를 하고 있다.

C형제의 족구 포지션은 언제나 공격에 배치해 준다. 마음껏 공격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가끔씩 팀의 형제와 C형제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남양주 식당에서 만나 식사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간을 통해 C형제의 필요를 살피고 친해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형제는 24년 팀 송년모임에도 참석하여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좋은 영향을 받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팀 형제가 관계형성중인 J형제를 기도의 하루에 초청했다. J형제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운동 후 식사하는 시간과 차 마시는 시간을 통해 대화하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 형제는 우리들의 축구 실력을 보고서 “이 정도라면 자신도 할 만하다.”고 말했는데 함께 웃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J형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팀 형제 두명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기도의 하루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도록 권면할 생각이다.

25년도에는 기도의 하루는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갖기로 했고, 매월 1회는 새로 참석한 영혼들의 필요에 맞게 시간 사용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탁구모임, 약초 캐는 시간 등을 확대하여 참석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듬뿍 맛보길 소원한다. 직장인 타 팀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축구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는 경우 기도의 하루시간에 함께 합류하여 즐기길 원한다.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 평일 시간을 이용하여 초청된 영혼들을 만나 다양한 필요를 채우면서 정기적인 성경공부 모임으로 초대되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접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그래서 사 55:5 약속의 말씀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 오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드리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 ENM 지부 이야기 : 부산지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로선교회



## 1. 지부의 History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ENM 부산지부의 역사는 변희관 목사님 부부의 신앙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변희관 목사님은 대학 졸업 후 1967년 장로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막 창립된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암송과 성경공부,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 원리 등을 배우면서 깊이 있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재학시절 사모님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삼사관학교 군목으로 재직하며 열매 맺는 군사역을 하던 중, 변 목사님은 부산 및 영남지방 개척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군 제대 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977년 3월 부산으로 내려오신 것이 부산 사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변 목사님은 창세기 22:17,18절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도하셨고, 영남지방의 주요 캠퍼스에 전임 사역자들을, 세계 각국에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꿈을 품으셨습니다. 특히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1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역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외에 나가기 위한 여권조차 발급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3년 후인 1988년부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희관 목사님과 한경일 선생님, 오구탁 선생님 등 선교에 동참했던 초기 개척 멤버들이 함께하여 많은 기도와 의논을 하던 중, 새로운 선교 전문단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년 1월 "세계로선교회(ENM)"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ENM 부산지부는 세계 19개국에 6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들을 통해 길러진 현지인 선교사 6명을 다시 파송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5개 지역(구미지부, 서울 K지부, 서울 J지부, 수원 A지부, 천안지부)에 지부 간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변 목사님과 육군3사관학교생도들  
(부산 첫수양회, 77년 4월)



영남지방일꾼수양회  
(감림산기도원, 1988년 10월)



세계로선교회 창립식  
(배재대, 2000년 1월 1일)



ENM은 출범 이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아시아미션(AM),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학원복음화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교계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부산지부에서도 미국의 월드미션대학교와 동양선교교회와의 연합사역을 통해 선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현장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부에서도 31명의 리더와 선교사들이 이를 통해 목사안수를 받고 국내외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NM 부산지부는 지난 2023년 1월 1일,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자매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새로운 비전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변희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대표로 유동근 목사님이 취임하였습니다. 유동근 목사님은 1992년부터 부산 동의대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여 1999년 6월까지 캠퍼스 사역자로 일하였고, 2000년도에 세계로선교회가 출범하면서 부산A지부 멤버들과 함께 부산지부의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캠퍼스를 책임 맡아 사역하다가 2015년에 부산지부 국내 대표로, 2023년에는 변희관 목사님의 뒤를 이어 부산지부 2대 대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지부를 주님의 제자공동체, 일꾼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선교회는 어느덧 46년의 나이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고 일꾼을 배가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사역에 쓰임 받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 유동근 부산지부 대표님 가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유동근 대표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드림에 헌신하신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신앙과 삶의 방향기를 심하게 보낸 홍역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예수님 음성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4,15)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심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창원과 부산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였고, 1992년에 아내인 이종임 사모와 결혼하여 부산 동의대 개척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세계로 선교회와 함께하면서 부산지역 전체 캠퍼스 사역을, 2015년에는 부산지부 국내 대표직을 수행하다가 2023년 5월부터 부산지부 대표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슬하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 모두 결혼하여 캐나다와 미국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 3. 부산지부 사역 지부를 소개해 주세요.

2025년 부산지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로선교회’라는 표어를 따라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캠퍼스(초중고, 대학)와 직장과 지역 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재생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구성원들은 부산을 비롯하여 김해, 양산, 창원 등에 거주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해서 일꾼들을 파송하여 영적 장막터를 넓혀가는 사역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4. 부산지부 사역군을 소개해 주세요.

부산지부는 크게 4개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목장 공동체

부부, 장년, 노년에 속한 분들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목장 리더인 목자, 목녀와 각자 역할을 맡아 동역하는 목원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역에 대한 지원,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섬김,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목장이 여러 개 모여서 '초원'을 이루는데 슈퍼바이저(Supervisor)들이 초원의장이 되어 소속된 목자들을 인도하고 돕습니다.

### 캠퍼스 공동체

20세 이상의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캠퍼스 복음화와 제자 삼는 일을 목적으로 연합된 제자 공동체입니다.

### 엘틴 캠퍼스공동체

EI-Teens는 하나님의 십대를 의미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11-18세 청소년들의 제자공동체입니다.

### 주니어 캠퍼스공동체

유치부, 초등부에 속한 어린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주니어로 어릴 때부터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고 확립해 가는 어린이 공동체입니다.



1. 목장 슈퍼바이저 분들
2. 캠퍼스 공동체
3. 엘틴 캠퍼스 공동체
4. 주니어 캠퍼스 공동체

## 5. 지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부산지부 사역은 목장과 캠퍼스, 청소년과 유초등부로 세분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장별 구성원은 형제 목장과 자매 목장을 소규모로 그룹화하여 개인교제와 목장모임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몇 개의 독립적인 팀 체제로 구성하여 청년들만의 색깔로 함께 하며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편성한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전세대 금요찬양기도회로 모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와 부산의 대학 캠퍼스와 각 직장인 속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들이 길러지고, 그들이 한국 각 지역의 사역자로 파송되는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6. 파송한 선교사와 지부간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부산지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19개국 63명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21명, 아시아 선교사 26명, 북미 선교사 12명, 남미 선교사 2명, 유럽 선교사 2명입니다. 이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자비량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양육을 받고 현지인 일꾼으로 성장한 세 부부, 6명이 기니, 토고, 말리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를 소개하면 동아시아 국제학교 교사로 섬기던 한 부부는 한국 주재 국제학교로 스카우트를 받아 작년 7월에 입국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사역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선교사 부부도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의 필요를 돕고자 입국하여 프리랜서로 개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황창하 부부는 작년 8월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은퇴 후 1호 선교사로서 한 획을 그었는데, 은퇴 후 2호, 3호 선교사들이 일어나 새로운 선교사역에 모델이 형성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파송한 지부간사는 한흥조, 김공주 부부(구미), 서동욱, 박선자 부부(서울J), 허환구, 김경희 부부(서울K), 안창규, 엄미란 부부(수원A) 김형철, 이정아 부부(천안)가 있습니다.

## 7. 지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활동이나 강조점들을 소개해 주세요.

부산지부 역시 ENM의 다섯 가지 삶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일꾼 재생산, 훈련, 팀웍입니다. 특히 매년 '전도축제'를 엽니다. 형제자매들이 VIP 전도대상자들을 작성하고, 24시간 체인 기도를 시작으로 관계토크, 섬김주간, 초청예배주간, 새가족 환영회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8주간의 새가족학교를 통해 모임에 잘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면 수료식과 세례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일련의 프로그램을 주간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정착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 감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3040 젊은 세대를 다음세대 사역으로 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센터건축을 하였는데, 그 후에 스스로 찾아서 새벽기도와 주일예배에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은 고무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 8. 지부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2023년 1월 1일 새롭게 오픈한 부산지부 비전센터를 소개합니다.

지하는 주차장, 1층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올드 머그 구서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송정 본점과 구서점 2곳만 있는 특별한 맛과 향, 그리고 금정산이 주는 정취와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올드 머그 반대편은 코이노니아 홀로 청년대학생들의 교제와 휴식공간입니다. 2층에서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당나귀를 이미지 삼아 키즈카페 동키(Donkey)라고 부릅니다. 57평 공간에 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반대편은 드림홀로 주니어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3층에서는 "오투솔로몬 아카데미"(방과후 스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홀(Vision Hall), 목장의 교제를 위한 룸들과 주방 및 자모실도 3층에 있습니다.

4층은 우리 모두의 예배공간인 그레이스 홀(Grace Hall)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20석 규모의 좌석에 앉으면 창문 너머로 금정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새가족실, 스튜디오, 대표 사무실 등이 4층에 있습니다.

옥상에는 풋살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니어부터 청소년, 대학청년들,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형제자매들이 금정산의 정취를 감상하면서 건강을 위해 산책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간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야간조명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이웃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 부산지부 4행시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소망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부산을 사랑과 복음으로 덮을 거룩한 공동체! 부산 ENM입니다.

1층\_올드머그  
2층\_키즈카페  
2층\_드림홀  
3층\_비전홀  
4층\_그레이스 홀  
옥상\_풋살장

| 오시는길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19 (도로명)  
지하철\_구서역 1번출구 하차

# 광주 ENM 유치부 이야기

신창호, 전향옥 부부\_광주지부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와 감동은  
해마다 하는 구원 상담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광주지부 유치부는 무등산 조망의 최고의 뷰라 할수 있는 센터 5층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백일이 지난 아이들부터 취학 전 7세까지 25명 중 매 주일 15명 정도 아이들과 12명의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비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아이들의 마음 밭에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작은 영적 거인들로 세워져가는 것이 유치부의 목표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파견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큐티, 말씀 암송을 통해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단 주일날 유치부 예배에 일찍 오면 다양한 놀이를 통해 교회에 친숙해지고 아이들 서로 간에도 친밀해질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여는 찬양과 율동으로 신나게 뛰며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는 교사들의 열정적인 연극과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및 시청각 자료, 인형극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달하게 되며, 집중하여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주연 배우급 수준입니다. 또 매주 말씀을 손 유희와 함께 암송하며, 연 2회 OX퀴즈, 게임 등을 통해 암송대회가 마음 어렵지 않고 즐기며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말씀 묵상 중

또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기쁨과 동시에 즐겁게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캠프 때뿐 아니라 공과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셰프님을 초청해 바나나는 '천국', 검은색 미쯔 과자는 '죄', 미니 토마토는 '예수님 보혈', 샤인 머스켓은 '말씀과 예배를 통한 성장'으로 복음 베이커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요리 활동(수박화채, 파르페 등)을 이용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모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생일축하 노래를 개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복음 활동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예배 시작 전후 놀이활동



| 설교 중간 교사들의 연연



| 복음 베이커리 및 요리활동



또한, 공과시간에는 각반별 담임선생님들 인도 아래 설교 말씀을 깊이있게 반복하여 나누고 삶에 적용시키며 설교 주제에 따른 말씀을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활동이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다양한 공과활동

또 하나의 자랑! 꽃 중의 꽃! 멋진 청년부 선생님들인데요! 여름 캠프때에는 젊고 멋진 청년부 선생님들의 여름 신앙 훈련을 유치부 섬김을 통해 함께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연극, 퍼레이드, 첸트송, 게임등 함께 함으로 활기가 넘치고 큰 기쁨과 격려가 됩니다. 이때만큼은 저희 교사들의 인기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 청년부 선생님들의 섬김

여름캠프와 겨울캠프 때에는 새친구 초청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실제 이때 교회에 발을 딛었던 친구들이 지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유치부 예배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걸 새삼 느끼기도 하네요. 각 사역군을 떠나 서로 협력하여 식당 봉사나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의 섬김이 큰 도움의 손길이기에 감사가 됩니다.



| 신나는 여름 / 겨울캠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와 감동은 해마다 하는 구원 상담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복음 딱지를 들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3살 아이도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영접기도를 하며 아멘!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명도 떼 부리지 않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옆에 부모님과 할머니도 복음을 전할 때 아이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 복음 딱지 - 구원 상담



| 교사들의 축복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저희 유치부에도 갑자기 마주한 2년간의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선물꾸러미를 들고 선생님들이 각 집으로 방문하며 자체 온라인 예배와 공과 활동, 아이들이 기도제목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했었던 그때도 주님은 일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혼주의나 늦은 결혼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어 저희 교회 유치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기도하며 아이들 위해 어디든지 버선발로 달려가 선물과 함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광주 근교에 친척들 중 소개해줄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심에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주신 비전을 꿈꾸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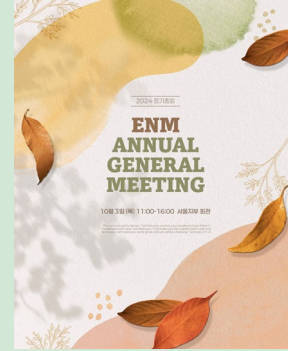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여러 도움의 손길과 섬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유치부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가을이 노랗게 물들다...

: 2024년 ENM 정기총회 스케치

본부 사무국



가을이 노랗게 물든 지난 10월 3일, 2024년 ENM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를 지부회관에서 열자는 제안이 있어 작년에는 부산지부에서 열렸고, 올해는 서울지부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른 담쟁이 덩굴이 아름다운 서울지부 회관에서는 서울지부 형제자매님들이 미리 오셔서 총회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자매님들이 총회를 위해서 떡과 과일, 풍성한 간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울지부 전체가 마치 손님 맞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지부에서 총 59명의 정회원분들이 새벽 기차와 버스를 대절하여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11시에 시작하는 1부 예배는 찬양인도 이홍재 이사, 기도 윤영석 이사, 설교 및 축도 강승관 회장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승관 회장은 마 9:9-12절 본문으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마태의 집을 찾아가신 주님께서서는 식사하시는 것에 진심이셨는데, 이는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더욱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어지는 점심 식사 교제도 진심으로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지부에서 섬겨주셔서 총회 사상 가장 고급스러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분들만이 아니라 푸짐한 스시와 초밥이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신 마태가 어떤 음식을 대접해 드렸을까? 스시도, 초밥도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서로 교제했습니다. 역시 입이 열릴 때 마음도 열리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2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허한구 이사회의원 점명 후 강승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은 서울지부에서 총회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간식을 비롯하여 총회를 잘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정회원으로 허입된 광주지부 유재용 김순미 간사 부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회원 모두가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송창호 이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했고, 24년도 본부 업무보고와 한홍조 감사의 본부 재정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승관 회장의 연임을 묻는 투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8-9기 전임회장을 역임한 최준모 울산지부 대표가 연임하게 된 회장, 총무, 이사진과 감사들을 위해 축복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부의된 정관 개정안(회원 명칭 변경건)에 대해 의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정회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토의 끝에 1년간 더 충분히 숙의한 후 내년 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의장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NM 정책 개정을 위한 TF팀 구성과 운영, ENM 전국 캠퍼스 사역자 모임 개최 건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기타 안건 토의에서는 매년 총회 때마다 제기되어 온 본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의장이 차후에 이사회와 지부대표님들과 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갈되어 가는 본부 재정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회의 결과와는 별도로 총회 이후에 여러 지부에서 자원하는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본부 후원을 매월 해 주셔서 재정이 채워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들의 따뜻한 마음들 때문에 본부통장 잔고도 올라가고,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몇 건의 안건을 다룬 뒤에 의장이 동의와 재청을 받아서 폐회를 선언함으로 정기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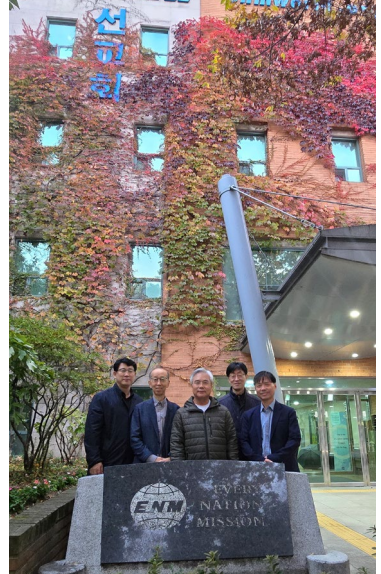
아니 벌써, 헤어져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전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내년 광주지부 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서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지부 형제자매들이 광주로 내려가는 대절 버스와 부산, 울산 등 멀리서 온 분들에게 끝까지 간식을 챙겨주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 아래, 가을이 노랗게 물든 10월 3일은 ENMer들이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ENM 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빛고를 광주 총회에는 또 다른 추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남도의 손맛도 덩으로 기다려집니다.



# ENMers'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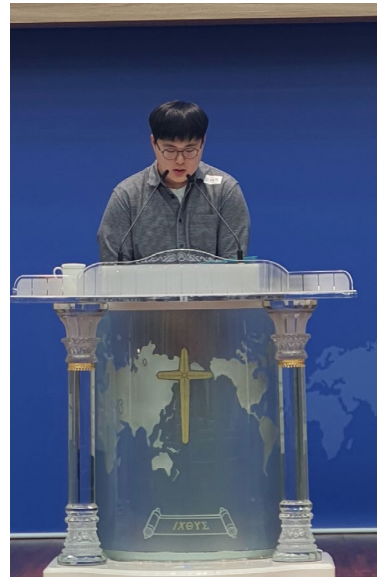
















## ENM 후원안내

후원하시는 헌금은 본부 재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캠퍼스 간사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매월 1만원 1구좌 이상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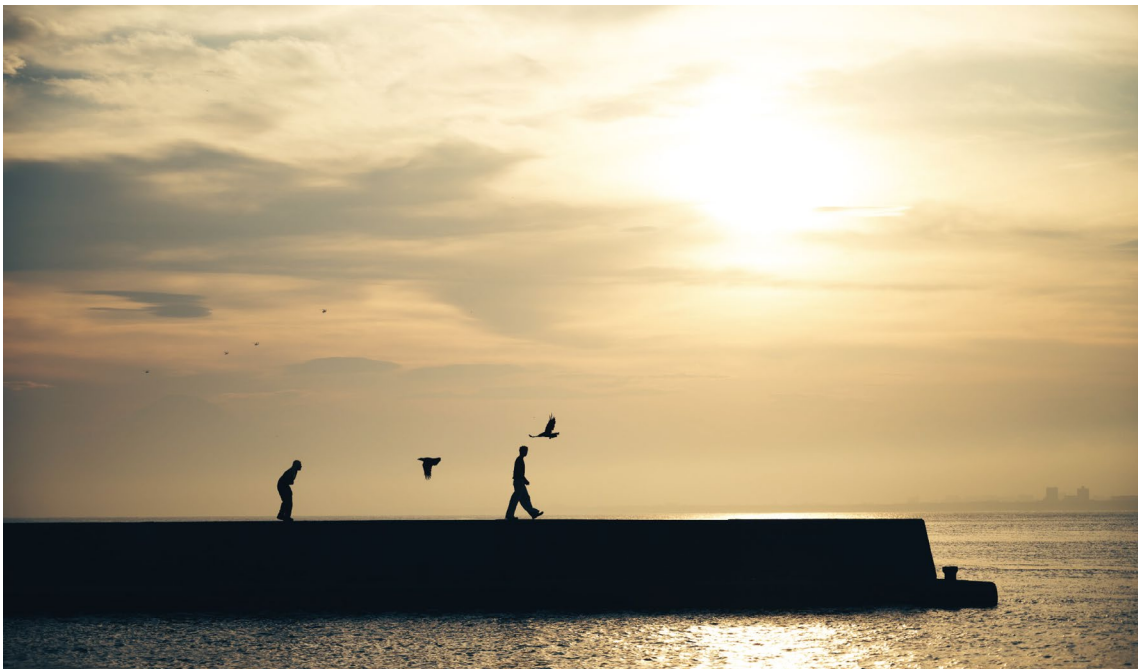
---

### •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48-6535-41 세계로선교회(ENM)

국민은행 846601-01-443847 세계로선교회(ENM)

---



| 사진\_장민수(수원A지부)